

자기소개서

소속	○○ 중 학 교	직위	교장	성명	○○○
----	----------	----	----	----	-----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윤동주, ‘새로운 길’에서)” 고등학교 교사의 길(20년), 교육전문직원(5년)의 길을 지나 교감·교장의 길(6년)을 가고 있는 제가 솔내고 공모교장 지원을 결심하며 떠오르는 시의 구절입니다.

초임지 학교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교단에서 제 삶은 1995년 oo고**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선배교사가 “정치인은 표를, 상인은 이윤을 목표로 한다. 교사는 이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므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던 말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oo고(4년)와 oo고(2년)를 거쳐 **2001년에 시작한 oo고(6년)는 교단 인생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6년간 담임·학년부장을 계속하는 동안 체계적인 진학상담, 밀도있는 담임 협의, 학교생활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있는 학년·학급운영을 하였고, 우수한 대입 성과(2005년 3학년 진학부장 S대 14명 합격 등)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가 **2007년부터 6년 동안 근무한 oo고**는 공립학교의 변화와 교육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1.0(개방형 자율학교)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oo고는 자공고1.0프로그램, 교장공모, 교원초빙, 교직원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몇 년 후에 인근 사립학교보다 선호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3학년 담임·3학년 진학부장을 4년간 하면서 자공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실화,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과 진학지도 성과(2009년 3학년 진학부장 S대 2명 합격 등), 교직 업무경감과 사기진작 등이 매우 중요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로서의 마지막 학교는 다시 oo고**였습니다. 2013년 발령과 함께 2학년 부장, 2014년 3학년 진학부장을 담당하였는데, 충분한 담임 협의, 학년 중심 진학지도 체계화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한해도 쉬지 않고 담임이나 부장교사를 하면서 늘 학교교육의 변화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특히 갈수록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과 학부모, 성적과 입시결과가 너무 강조되며 다수의 학생이 소외되는 교실, 공문과 행정애 밀려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없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선배교사로부터 전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저는 장학사 전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교육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여 교육청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중학교 근무경력 없이 고등학교 수업과 대입만 보던 제가 장학사로서 처음 맡은 업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이었습니다. **2014년~2015년 고입업무를 총괄**하면서 평준화지역 고교 원서작성 및 배정시스템 개선, 고입연합고사 폐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고입내신산출기준 마련 등의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2016년은 **oo교육지원청**에서 대입, 고입, 중등교원 인사 등 여러 업무를 맡아 공문과 서류를 감측하고, 담당학교를 직접 방문하면서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 행정과 정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교육전문직원으로서 마지막은 교육과 관련된 많은 법령과 규정, 교육청 각부서의 사업과 지침을 두루 파악하는 부서였습니다. 교무학사감사를 주로 담당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은 유지하면서 교원이 각종 법규를 지키지 않게 되면 학생은 물론 교원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학교의 잘못된 관행과 교무학사 운영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학교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부서에 직접 통보해서 관련 지침을 수정하기도 했던 일 (방과후 내부강사 채용 지침 개선, 야간수업 초과수당 지급 의견 등)은 보람있는 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발생한 민원·사안감사를 담당할 때는 상식과 균형에 따른 판단과 결과 통보를 노력했지만 구성원의 극한 갈등과 대립으로 초래된 감사는 결국 관련자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직접 보면서 마음이 자주 아팠습니다.

교원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어 선택한 재전직은 **oo고 교감**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oo고는 종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지만 계속된 학생지원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감으로서 저는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 교원들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서 교원업무분장 재구조화, 학생흥미를 고려한 소수선택 과목 운영, 학생체험과 학생 활동 강화를 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의 노력과 혁신학교 운영을 바탕으로 조금씩 학교는 변화하여 신입생모집에서 정원을 충족하고, 지역내 학생과 학부모가 인정하였는데,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 『지평선에서 하늘을 품다, oo고교육공동체, 2019』를 교감으로서 주관하여 발간했습니다.

제가 교직에서 처음으로 중학교를 경험하고, 눈을 새롭게 뜨게 된 것은 **2022.3.1.자 oo중 교감**으로 발령받은 덕분입니다. oo중은 이미 교원공동체가 잘 형성된 학교여서 저는 그 문화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교사들과 충분히 교감(交感)하면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주제통합수업과 학년별 프로젝트 활동, 교사들이 조력자로 있으면서 활발히 운영된 학생자치회, 학생이 중심이 된 학교축제와 영화제, 그리고 모든 교사가 함께 수업을 보고 수업 후 모두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수업과 학생지도에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수업나눔 사례는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2023.3.1.자 oo중학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교무실과 행정실의 상보적 관계 유지, 교원 사기진작 방법, 학교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대외적 민원 처리 등 학교장의 역할은 가볍지 않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교장으로 발령받자마자 3월 초 대두된 남녀공학 전환 요구와 학급수 감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는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1년 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단성학교 모두 공학 전환으로 정리하였고, 선진형 교과교실제에 따른 학급 교실과 교원 소통 공간 부족 문제를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학급실 확보와 교무실 확장으로 풀어내었습니다. 전북미래학교 공모 선정, 학급·학년별 합창대회 개최, 학교자치 복합공간 조성, 가사실습실·영어실·수학실·특수개별실 등 특별교실 현대화, 교육상담실·교육복지실 구축과 남녀교직원휴게실·예술놀이터 조성, 체육관 시설 개선(7월 예정) 등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0년대 임실 관내 중학교를 다니던 저는 이촌향도 흐름 속에 전주시내 중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하였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경제적 이유로 대학을 선택하여 오늘까지 교육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선택된 교육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제가 만나는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제 자신과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안정된 현재의 학교에 머무르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지만, 저는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가려 합니다. 저는 정치인도, 상인도 아닌 교사로서의 길을 선택했기에 이상을 품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숙명을 타고났으니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을 만나는 일은 정현중 시인의 말처럼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 곧 사람의 일생을 만나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20년, 장학사, 교감, 교장의 경력을 거치면서 우리교육의 근본적인 방향과 교육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거듭 고민 왔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율형공립고2.0에 지정된 솔내고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육력을 가진 학교로 자리를 잡고, 학생들이 즐겁게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학생 개개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진로와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생활 과정과 결과가 모두 아름다운,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학교의 모습이 꼭 꿈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솔내고 공모 교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